

K리그 개막전 빅매치 전북현대-FC서울 티켓 예매 하세요

지난시즌 리그 · FA컵 우승팀 격돌 관심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의 개막전 중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와 FC서울의 경기의 티켓 예매가 3일 오후3시부터 인터파크(sports.interpark.com)를 통해 시작된다.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와 FA컵 우승을 차지한 FC서울의 경기인 만큼 전국의 축구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시즌 홈 최다 관중 1위를 차지한 전북은 개막전 만원 관중을 위해 전주시(시장 김승수)와 전주시실업리공단(이사장 김신)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관중 편의를 위한 교통편 대책 방안들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하며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홈경기의 모든 티켓은 현장분을 따로 존치하지 않고 통합 판매한다. 인터넷 예매에서 모두 매진될 시 경기 당일 매표소에 가더라도 티켓 구매는 불가능하다. 인터파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할 경우 1,0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예매권은 경기당일 현장 매표소 창구에서 교환해 입장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8일 개막 KBO 시범경기 총 90경기 역대 최대

2016 타이거뱅크 KBO 시범경기가 오는 8일 수원(두산-kt)과 대전(넥센-한화), 광주(LG-KIA), 마산(삼성-NC), 울산(SK-롯데)에서 일제히 개막한다.

올해 시범경기는 10개 구단이 팀당 18경기, 총 90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 고척 스카이돔과 삼성 라이온즈의 홈구장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는 각각 15일과 22일에 첫 홈경기를 갖는다.

KBO는 "올 시즌 역시 KBO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한 스포딩캠프 경기 첫 중계에 8000여명이 접속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2만여 명이 시청했다"며 "겨울 동안 야구를 기다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시범경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비 돌입

내년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1차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가칭)' 총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직위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정관 제정과 위원 및 임원 선임, 대회 개최계획 보고 등이 진행된다.

위원과 임원으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전, 수원, 인천, 전주, 제주, 천안 등 6개 도시 단체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재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43명이 위촉된다.

해설로 맹활약 중인 안정환 해설위원도 대회 성공을 위해 위원으로 합류한다.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가 열린다.

조직위의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각종 규정을 제정한다. 집행위는 조직위와 대한축구협회 임원, 문체부와 체육단체, 개최도시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감사 2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꾸려진다.

/김민근기자

샌안토니오, 19년 연속 PO 진출 확정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키워인 레저드와 라미커스 알드리지가 팀 득점의 절반을 넘게 올리는 활약을 펼치며 디트로이트를 꺾고 19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다.

샌안토니오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AT&T 센터에서 벌어진 2015~2016 미국프로농구(NBA)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에서 97-81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6연승을 달린 샌안토니오는 올 시즌 개막 후 홈 경기 29승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51승5패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54승5패)에 이어 리그 전체 2위다.

또 골든스테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으며 19년 연속 플레이오프행을 예약했다.

4연승 중이던 디트로이트는 아부 성공률이 39.7%에 그쳤고, 샌안토니오(8개)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5개의 실책을 범하며 경기를 내졌다.

/김민근기자

'우리동네 예체능' 이번에는 배구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 지휘
학진·오타니 만 선수출신

"유도부가 많은 사랑을 받고 배구로 연결됐다. 새로운 종목을 하면 부담이 된다. 어떻게 극복하고 흥내라도 낼 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MC 강호동(46)은 최근 서울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열린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해룡 PD를 비롯해 오만석(41), 오타니 료헤이(36), 이재윤(32), 조동혁(39), 강남(29), 조타(22), 학진(24) 등이 참석했다.

탁구·볼링·배드민턴·농구·태권도·축구·테니스·족구·수영·유도에 이어 11번째 종목으로 배구를 선정했다. 김세진(42) OK저축은행 감독이 지휘를 맡았다. 김 감독은 사정상 고사했지만 3개월간 설득 끝에 응했다.

김 PD는 "배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세진이라며" 섭외 요청을 했더니 자신이 맡은 프로팀이 시즌 중이었던만큼 처음엔 안 한다고 했다. 안 하면 배구 편을 못한다고 으름장을 놔다. OK저축은행 경기장과 분당 숙소에 가서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열린 KBS 예능프로 우리동네 예체능 '우리동네 배구단' 기자간담회에서 출연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달라고 졸랐다고 밝혔다. "결국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다."

배구를 생활스포츠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 시청자들과 함께 90년대 배구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출연을 결정했다."

강호동은 기대되는 멤버로 오만석을 꼽았다. "배구보다는 입담으로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외로 집중력과 승부사 기질이 있다. 입담도 대단한 것 같다"

오만석은 전 멤버 정형돈(38)을 언급하며 빠른 쾌유를 빌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형돈은 정형돈만의 매력이 있다. 내가 정형돈의 부피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학진과 오타니 료헤이는 선수 출신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0년간 배구를 했었다. 아쉽게도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선수생활을 그만뒀다"(학진)

"일본에 있을 때 공부는 안 하고 오로지 배구만 했다. 일본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배구만 하고 대학에 갔다."(오타니 료헤이)

강호동은 "이미추어의 도전이지만 최선을 다해 하겠다. 경기할 때마다 땀 냄새가 진동한다. 그 진정성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PD는 "배구는 단기간에 배우기 힘든 종목이다. 학진과 오타니 료헤이를 제외하면 정식으로 배구를 배운 멤버는 없다"며 "겨울 스포츠의 꽃이 배구라고 생각했다. 섭외가 어렵더라."

장소도 그렇고 연예인들을 찾기 힘들었다. 멤버들이 각 포지션에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배구 편은 8일 밤 11시10분 첫 방송된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 · 인 · 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